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50, No.1 (Jan. 2000) p.129~144

Underwear에 관한 考察
- Corset을 중심으로 -

남 미 향 · 이 순 홍*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Underwear
- Focus on Corset -

Mee-Hyang Nam · Soon-Hong Lee*
Dept. of Clothing, Sungshin Women's Uno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Sungshin Women's Unoversity*

ABSTRACT

In the history of the costume of Western Europe one of the most interesting aspects is that the silhouette of women's dress has been continuously evolved. There can be various origins in this changing silhouette but the most important origin is that clothes of any period are the reflection of the architectural, political, religious, and economic background against which they are worn, they must also be adjusted to the texture and design of the materials produced at the time, and, of course, there is always the basic instinct of sex attraction. The changing line in men's and women's clothes has been demanded by each period, but man's great active life did not required the development of exaggerated line which could restrict his movements. Exaggeration in men's clothes has usually been confined to accessories only, details which could be simplified or abandoned altogether in time of action. However, Woman has no great concern in these restrictions and when an era demanded an exaggerated silhouette, she developed it to the utmost limit, without any hesitation plunged herself into whalebone, cane, and steel for the desired line, and then later, to adapt herself to a changing world, just as without any hesitation abandoned all these artificial props.

In this study, first of all, the origin of the corset and the evolution of silhouette will be chronologically studied and rearranged on the basis of written materials such as text books, theses, and catalogs which are related to corset. In this section the most important backgrounds-social, religious, and economic-which caused the changes of silhouette will be scrutinized in a time order. Then the shapes and functions of corsets will be looked into in a more detailed way. In addition, the materials and decorations which were

preferred to achieve the desired silhouette will be examined. Finally underwear which was and has been worn for cleanness, protection, the fine shapes of outer clothes, and erotic mood will be studied.

Key Word : 코르셋, 슈미즈, 후프, 페티코트, 드로워즈, 브래지어, 캐미솔
(Corset, Chemise, Hoop, Petticoat, Drawers, Brassiere, Camisole)

Ⅰ. 서 론

모든 시대들이 남성과 여성의 의복에 외형선 변화를 요구해 왔지만 남성들의 매우 활동적인 생활은 그들의 움직임을 제약할 수도 있는 과장된 선을 원하지 않았다. 남성복장에 있어서 과장은 활동시에 간소화시키거나 떼어 낼 수 있는 디테일 즉 액세서리들로 국한되어져 왔다. 그러나 여성들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러한 제약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어떤 시대가 과장된 선을 요구하면 그 것을 최대한도로 과장시켰고 원하는 선을 얻기 위해서는 서슴지 않고 whalebone, cane, 그리고 steel속으로 자신을 내던졌다. 그리고 나중에는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또 다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모든 인위적인 것들을 포기해 버렸다.

이렇게 긴 역사 속에서 겉옷과 속옷의 변화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겉옷에만 관심이 치중되어 연구된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특징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여성의 욕망은 끝이 없기에 물리적인 힘을 가해 자신의 선천적인 곡선미를 수정하고 육체적인 약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신체적인 부작용도 감수하며 착용해 온 보정용 속옷인 코르셋과 보호와 위생,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 장식용 속옷 등이 그 시대마다 사용된 소재의 종류와 방법, 그리고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함이다. 연구내용은 코르셋의 기원과 변천 과정, 코르셋의 형태와 기능, 재질과 장식 등 코르셋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후 코르셋과 함께 해 온 속옷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범위는 고대부터 중세, 근세, 근대, 현대까지이며, 연구방법은 현존하고 있는 실물 자료들과 국내외의 복식사(服食史) 문헌적 자료를 토대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Corset의 기원과 변천과정

1. 고대

크리트와 미케네 문명, 앗시리아, 이집트와 같은 초창기 문명의 조각물이나 도자기류에서도 코르셋을 입은 여성들이 자주 묘사된다. 그 중에서 얼굴 화장을 짙게 하고 유방을 크게 돌출시키고 있는 여성을 표방한 다채로운 색상의 테라코타 소조상(小照像)(polychromed terracotta statuette)인 Snake Goddess가 발견되었는데, 이 Snake Goddess는 크리트시대의 이상적인 여성상을 구현한 것이다(그림 1).

이 시기의 코르셋 착용은 허리를 조여서 가늘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가슴을 바쳐 풍만하게 보임으로 다산과 풍요로움을 나타내고자 하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B.C 2000년경의 크리트 여성들은 Snake Goddess처럼 되고자 코르셋을 밑가슴에 착용하여 선정적(煽情的)으로 유방을 돌출 시켰다. 또한 이러한 크리트 사람들의 의상은 20세기 의상의 실루엣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1)]

그리스시대에는 부인들의 의복 착용의 미를 갖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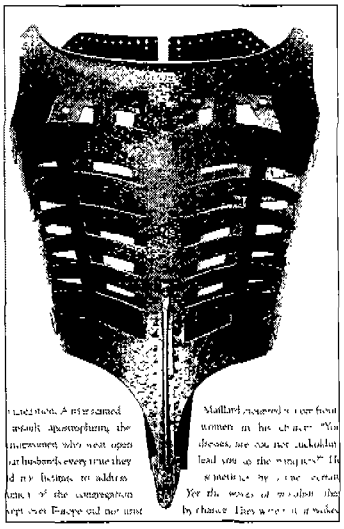
1) Be'atice Fontanel, Support & Seduction, (Harry N, Abrams, Inc.,Pulishers, N.Y, 1997), p.10

<그림 1> 코르셋 벨트로 유방을 강조하고 있는 Snake Goddess(Support & Seuction, p.10)

기 위해 몸통에 천을 말아 코르셋의 용도로 사용했는데 아리스토파네스(Aristophanes: B.C. 448~B.C. 381)의 '여자의 평화'에 나타나는 등장 인물 뮤니네는 흉대를 착용했는데 흉대(ceiuture corset)는 당시의 요대(zona)를 가리킨다[2]고 한다. 로마인들은 그들의 신분을 과시하기 위한 노예 지배의 의미로써 노예들에게 타이레이싱을 시켰는데 이는 주인에 대한 복종과 그들의 낮은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또 기독교의 광신자들은 참회의 의미로서 허리가 잘릴 정도까지 로프로 꼭 조였으며, 알렉산드리아(*Alexandria*)와 콘스탄노플(*Constantinople*)의 여성들은 정교한 귀금속과 보석으로 장식된 타이트한 벨트로 치장함으로써 이러한 종교적 열성을 모방하였다.[3]

2. 중세

12세기 로마네스크시대에는 속옷으로 또는 겉옷으로 착용했던 소매없는 조끼 형태의 허리에 꼭 맞는 의복인 코르사주(Corsage)가 있었다. 15세기부터 남녀간에 아워글래스 실루엣이 유행하면서 그들은 나무나 고래뼈 심지어는 철로 만든 단단한 바디스를 입었으며 신체적 기형을 지닌 여성들만이 착용하는 금속 Cage도 있었다(그림 2).



<그림 2> 15C 금속 코르셋
(Support & Seduction, p.27)

3. 근세

본격적인 코르셋의 사용은 1577년경부터 여성들의 허리를 조이는 필수품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엔 허리를 인위적으로 조이는 정도가 심해져서 가는 허리에 부풀린 스커트는 부와 권력의 상징이였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코르셋이라 부르지 않고 바스킨(Basquine), 코르피케(Corpspique')로 불렸는데, 이 코르셋들은 16세기 중반을 지나 다음 세기까지 계속 유행되었다. 17세기 초는 네덜란드풍의 영향으로 코르셋 사용이 주춤하다가 후반에 귀족풍이 유행하면서 코르셋의 사용이 부활하게 되는데, 이때 생긴 것이 코르발레네(Corpsbaleine')이다. 18세기 로코코시대에는 가는

2) Michele Beaulieu, 中村祐三(譯), Le costume Antique et Medieval, 東京, 白水社, 1974, p.64
3) 이의정 · 양숙희(공저), 페티시즘,(서울 : 경춘사), 1998, p.78

허리의 연약한 여상다움이 로코코의 낭만을 효과적으로 발휘한다는 것을 알고 어릴 때부터 어떤 고통도 참아 냈다(그림 3). 프랑스에서의 가는 허리에 대한 동경은 코르셋의 구성법에 상당한 연구와 진보가 있게 되었다.

<그림 3> 가는허리에 대한 허영을 풍자한 작품
(Soen Eye, p.32)

4. 근대

이렇게 코르셋은 16세기이래 완전한 형태를 가진 금속 코르셋으로 차차 개량되어 18세기말에 이르러서는 허리를 가늘게 보이게 하는 효과와 입어서 편안함을 겸할 수 있는 구성 기술까지 도달했다. 그러나 착용했을 때의 외관은 근세를 통해 커다란 변화가 없고, 앞 중앙이 삼각형으로 내려와 가는 허리를 강조하는 것은 시종 변함이 없었다. 프랑스대혁명(1789~1795)을 계기로 고전 의상에 대한 동경은 그리스풍의 엠파이어 드레스(Empire dress)를 다시 유행시켰고 코르셋은 한 동안 주춤하게 된다. 나폴레옹의 패배 이후 구 귀족 세력은 과거의 봉건 귀족이 누렸던 중세 사회의 부귀영화(富貴榮華)를 동경했고 그 당시의 복식문화를 되살리고 싶어서 신 르네상스(Neo-Renaissance)스타일로 로맨틱 스타일(Romantic style)을 창안했다. 가는 허리와 부풀린 스커트는 귀족적인 우아함과 호화로움을 가장 뚜렷하게 표현 할 수 있는 주 요소로서 코르셋이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이 시대의 코르셋은 신축성 있게 짠 능직면과 고래수염으로 만들었으며 효과적인 구성법은 영국에서 먼저 고안하여 전 유럽에 보급시켰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스커트를 한없이 부풀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배까지 조이는 영국제 긴 코르셋은 필요 없게 되었다.

1840년대부터는 신축성이 있는 코르셋의 구성법이 연구되어 여러 가지 참신한 형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1844년에 뒤물랭(Dunoulin)여사에 의해 개발된 코르셋은 딱딱한 바스크나 고래수염을 넣지 않고 몸의 곡선에 따라 재단한 헝겊을 조각조각 맞추어 바느질함으로써 몸에 꼭 맞고 부피와 무게가 크지 않아 입었을 때 주름 하나 없이 매끈하게 잘 맞았고 자유로워 1860년대까지 많은 여성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보급되었다. 또한 이 코르셋은 봉제기술사상 획기적인 것으로 주목될 뿐만 아니라 그 창의성이 높이 평가되었고 그녀의 공로로 후에 코르셋 제작은 위생과 건강, 동작의 자유를 고려하게 되었다. 1850년대에는 대체적으로 딱딱한 고래뼈 사용이 적어지면서 코팅(cording : 끈을 넣고 바느질하는 것)과 퀼팅(quilting : 누빔천)등으로 빳빳하게 풀기를 주어[4] 허리를 조였다.

1870~1890년의 버슬 스타일 시대에는 앞이 납작하고 힙을 부풀리기 위해 뒤가 짧은 형태의 코르셋이 창안되었다. 189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허리에서 힙에 걸쳐 가늘게 정리된 실루엣을 좋아하게 되자 가슴은 똑바로 펴고 배는 다듬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코르셋 연구에 공헌이 큰 프랑스의 시로트 부인(madame de Gaches Sarraute)은 1900년에 위생적으로 고려된 건강 코르셋(health corset)을 창안하여 주목을 끌었는데, 이것은 유행을 쫓는 여성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있

4) 정흥숙,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 교문사, 1997), p.319~320

었다. 이른바 S-커브 실루엣으로 알려진 이것은 1904년에서 1905년에 걸쳐 유행의 절정을 이루었는데, 이 코르셋을 장기간 착용했을 경우, 신체는 독특한 S자 형으로 변형되기 때문에 척추 만곡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그 후 제1차 세계대전으로 남성들은 전쟁터로 나가고 여성들이 도시에 남아 산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사회 진출로 인하여 코르셋의 불편함을 느끼게 된 신체는 자연스러운 체형으로 대체되었다. 그래서 아르 데코(Art Deco, 1920년경의 실루엣)시대에는 스트레이트 박스 실루엣을 만들기 위해서 이전 시대와는 다른 간편하고 느슨한 형태의 코르셋과 브래지어를 착용했다. 1930년대에는 레이텍스 천과 슬라이드 패스너를 이용하여 가장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실크 코르셋이 제작되었는데 이것으로 인해 여성들은 처음으로 자기 체형에 맞는 편안한 실크 코르셋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5] 코르셋의 백은시대(silver age)로 간주되는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까지 Christian Dior가 New look을 발표함으로써 여성적인 곡선미가 부활되어 대 유행하면서 부풀린 가슴과 가는 허리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의 미니스커트의 등장과 1970년대의 펑크와 팝의 영향으로 코르셋의 사용은 주춤하게 되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현재는 코르셋에 의해 강제로 왜곡되고 변형된 인공적인 인체미 대신 신체의 곡선을 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건강한 육체의 아름다움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향으로 패션이 진보함에 따라 과거의 코르셋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 버렸고 이젠 거들이라는 현대적 의미의 코르셋으로 그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Ⅲ. Corset의 형태와 기능

1. Corset의 형태와 기능

1) 크리트(Crete)

크레트의 남성과 여성들은 허리가 굵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필수적으로 허리를 극도로 조이는 두꺼운 벨트 형태의 코르셋을 착용하였다. 이 벨트는 몸에 상처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장자리가 둥그랗고 보통 약간의 패드가[6] 들어 있으며 트임은 앞에서 매어 유방을 밑에서부터 강조하였다. 재료로는 가죽이나 금속이 이용되었는데 고가(高價)의 것은 장미꽃 문양이나 기하학적인 문양을 넣기도 하였다. 어떤 것은 에이프런의 가장자리 테두리와 동일한 문양을 넣어 통일된 미(美)를 보이기도 하였다.

2) 그리스(Greece)

문헌상에 보면 리넨이나 새끼염소의 가죽으로 된 밴드를 몸통의 허리 아래배쪽 들레에 감았는데 이것을 조나(Zone')라 하였다. 조나라는 용어는 "The odyssey and Iliad"와 Herodotus에 의해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이것은 허리와 다리의 형태를 아름답게 조정하였고[7] 체형을 가볍게 조인 점에서는 현재의 거들과 같은 기능을 지녔다고 생각된다.

3) 로마(Rome)

로마 여성 역시 엉덩이와 가슴둘레를 밴드로 둘렀는데 시인인 Martial에 의해 거들인 세스터스(Cestus)가 언급되어 며 조나와 비슷하나 폭이 더 넓은 벨트를 한 것을 볼 수 있다.[8] 또한 Cleopatra 부조에서도 보면 허리에 넓은 벨트를 한 것을 볼 수 있다[9]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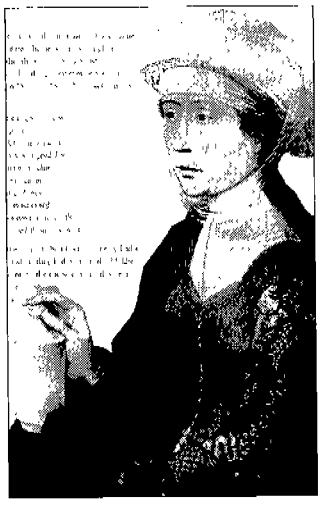
---

5) 정홍숙, 上揭出, p.375
6) 김주애, 여자속옷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1985), p.11
7) 김주애, 上揭書, p.12
8) Elizabeth Ewing, Dress and Undress, A history of women's underwer, Drama Book Specialists, N.Y, 1978, p.11
9) 김주애, 上揭書, p.12

4) 중세

중세시대의 코르사주(Corsage)는 몸에 꼭 끼고 앞이 트이지 않은 조끼 스타일로 블리오 위에 입었는데, 몸의 곡선을 나타내기 위해 블리오처럼 등위를 트고 끈을 끼워서 잡아 당겼다.

코르사주의 밑단은 배 밑으로 곡선을 이루는데, 긴 장식띠를 허리에 한번 두르고 다시 코르사주 단을 따라 배 밑에서 매고 그 끝을 늘어뜨렸다. 신축성을 주기 위해 울과 실크의 교직물을 두세겹 겹쳐서 누빈 것이 이 옷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화려한 것은 금·은·색실 등으로 모양을 넣어 누비고 보석으로 장식했다.[10] 서민층 부인들은 슈미즈 위에 검소하게 입기도 했다. 또한 앞트임으로 되어 끈으로 묶어 잡아 당겨서 몸의 곡선을 더욱 강조 할 수 있었고 길이는 low waist line까지 내려 왔으나 풍성한 스커트가 달린 것도 있고 때로는 소매 길이가 긴 것도 있었다. 이때의 소매는 코르사주와 가볍게 손바느질되어져 있어 떼어내고 다시 붙일 수가 있었다(그림 4). 이렇게 중세시대의 코르셋은 서민의복으로 시작되어 일상 가정의 옷으로 입혀졌는데



<그림 4> 꽉조인 bodice를 입고 있는 Saint Maty Magdlene(Support & Sedution, p.25)

15세기부터는 대부호(大富豪)나 귀족부인의 옷으로도 받아들여졌다.

5) 르네상스(Renaissance)

① 바스킨(Basquine)

바스킨은 16세기 전반에 서구 부인이 사용한 코르셋의 일종으로 영어로는 웨이스트 코트(waistcoat)나 웨일본드 바디스(whaleboned bodice)라 한다. 바스킨의 형식은 앞이나 옆, 또는 뒤가 트인 조끼 형식으로 허리뿐만 아니라 가슴과 배까지 조이는 역할을 했다. 그 구성은 바스크(단단한 나무, 뿔, 고래수염, 금속, 상아)를 일단 헝겊 tape로 싸서 풀먹인 2장의 리넨사이에 삽입시켜 딱딱하게 부풀려 형태를 만들었다. 이때 삽입된 바스크의 폭은 일정 하지는 않았지만 초기의 것은 3~4cm정도로 생각된다. 바스크를 삽입한 장소는 주로 앞 중앙이었지만 등, 옆구리, 그 밖의 요소요소에 넣어서 전체에 흉(胸)을 이룬다. 때로는 폭이 좁은 것을 뒤 중앙에도 삽입시키기도 했다. 바스킨 이외에 단단함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0.5cm 정도의 고래수염을 앞, 뒤, 옆 등에 부분적으로 몇 개 나란히 삽입하던 것을 점차로 조밀하게 삽입시켰다. 바스킨의 길이는 동의(胴衣)의 목둘레선으로부터 하단까지이며 하단부는 삼각형으로 뾰족해졌던 것이 점차로 하복부까지 봉장으로 뻗쳐지게 된 것이다.[11] 바스킨 아래에는 끈이 달려 있어서 스커트를 부풀리는 속치마와 연결시킬 수 있게 디자인했다.

② 코르피케(Corps-pique')

코르피케는 「누비 동의(胴衣)」라는 뜻으로 1577년에 나타나 다음 세기까지 계속되었는데 종래의 바스킨보다 더 강하게 몸을 조일 수 있도록 재료의 구성법이 한층 발달된 것이다. 형태는 두 겹 이상의 리넨을 겹쳐 누벼 바스크의 딱딱함을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앞, 뒤, 옆 등 주요 부분에 바스크와 고래

10) 정홍숙, 前揭書, p.134

11) 최영옥, corset에 관한 고찰, (안동대 논문집, 제5권, 1983), p.657

수염을 삽입시켜 형을 딱딱하게 만들고 바스크를 삽입한 부분은 동(胴)의 구성 면에서 중요하게 되어 점차로 폭과 두께가 증가하였다.

바스크와 고래수염이 들어간 부분의 재봉법은 섬세한 박음질로서 누벼 전체를 정밀하게 장식하였다. 뮌헨의 박물관에 소장된 코르피케[12]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훼손되어 있고 바스크와 가는 버팀 살은 없어졌지만 그것을 삽입했던 장소는 박음질에 의해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데 트임은 앞, 뒤 중앙 또는 양쪽 모두 좌우에 구멍을 뚫어 끈으로 조여 묶었다. 가는 끈의 끝에는 금속이 부쳐 있어서 통과하기 쉽게 되었다. 끈이 통과하는 구멍은 옷감 끝으로부터 1cm 들어간 곳에 3~5cm 정도의 간격을 두고서 트고 구멍 주위는 튼튼한 실로 촘촘하게 처리하였다. 버팀 살을 넣는 장소의 stitch폭이 0.6cm 내외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상당히 가는 버팀 살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13] 바탕 천 위에는 전체가 화려한 천으로 감싸졌고, 특히 앞에는 자수로 훌륭하게 장식했다. 이와는 별도로 허리를 원하는 만큼 가늘게 조일 수 있도록 얇은 철제로 코르피케를 디자인한 것도 있는데 이 코르셋은 전·후·좌·우의 네 조각으로 앞의 가운데와 양옆에 두 장의 철편(鐵片)으로 되어 한쪽 옆에 장식이 있고 다른 편 옆쪽에서 고리로 잠그거나 볼트로 조이게 되어있다(그림 5).

<그림 5> 철제 코르피케
(Corest & Crinolines, p.25)

이런 철판에는 작은 구멍이 전체적으로 나타나도록 디자인[14]된 것도 있는데 이는 몸통에 통기성을 주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6) 바로크(Baroque)

이때 다시 생긴 코르셋의 명칭은 프랑스에서는 코르발레네(Corpsbaleine')라고 했고 영국에서는 스테이즈(Stays)라고 했는데 이 코르발레네는 고래수염을 조밀하게 교묘히 삽입시킨 그 구성상의 특징에 따라 불여진 것인데, 고래수염이 4.5cm 간격으로 드문드문 들어가 있는 것은 코르 데미 발레네(*Corps demi baleine'*) 즉 「고래수염을 반쯤 삽입한 동의(胴衣)」라 불렸다. 이렇게 발달된 코르발레네는 웨이스트를 가늘게 함은 물론 풍부한 앞가슴을 돋보이게 하는 묘법을 가졌다. 구성법은 종래의 코르피케를 토대로 해서 고래수염을 넣은 방법이나 바느질 방법이 몸통을 가장 합리적으로 조이게 한 것인데 풀 먹인 단단한 캔버스(Canvas : 면, 리넨으로 두껍고 촘촘히 짠 직물) 2장 또는 그 이상을 합쳐 그것에 0.5~0.6cm 정도의 간격으로 stitch하여 그곳에 고래수염을 넣어 완성시킨 것이다.[15] 바탕되는 천의 특징은 전체의 형태보다도 이어 붙인 솔기의 바느질 방법 및 고래수염을 넣는 방법(고래수염의 위치와 방향)을 중요시했는데 그 목적은 동(胴)을 아름답게 하고 허리를 가늘게 보이게 하기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디자인 된 것이다. 앞면과 뒷면에 어깨로부터 동(胴)의 중심부를 향해 곡

12) 丹野 郁, 前揭書, p.55
13) 최영옥, 上揭書, p.659
14) 최영옥, 前揭書, p.659~600
15) 오경숙, "undergarment의 변천사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성신여대 대학원, 1985), p.32~33

선의 솔기가 들어가 있고 고래수염도 같은 모양으로 앞뒤 진동둘레의 겨드랑이 밑부터 동(胴)의 중앙 하단 부를 향해 경사지게 삽입되었기 때문에 솔기와 고래수염이 삽입된 곳이 동(胴)의 중심부로부터 부채 모양으로 펼쳐지는 결과가 되었다. 또한 앞과 등쪽에는 몇 개의 고래수염이 수평으로 삽입되어졌기 때문에 착용하면 등쪽이 곧게 평평함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측면에는 옷감의 솔기와 고래수염이 거의 수직으로 넣어졌다. 착용시의 트임은 앞이나 뒤 중앙에 구멍을 내서 끼운 끈을 조여 조절하며 아랫도리로 갈수록 꼭 죄어 가는 허리가 되도록 하였으며 앞 중심이 돌출 되어 있는 탭이 달려 있어서 안쪽으로 스커트를 고리를 걸어 입어서 상하가 원피스 드레스처럼 보이게 했다. 또 앞이 벌어진 로브를 입을 때는 흉의(胸衣: stomacher)를 따로 입기도 했다.

7) 로코코(Rococo)

로코코 시대에는 코르발레네에다 고래수염으로 채운 넓적한 바스크 집어놓은 것 외에 발레네 드 드레사주(Daleine de dressage)를 첨가시켰다. 이것은 유방의 선과 같은 모양의 곡선으로 고래수염을 가슴 부분에 지면과 수평방향으로 삽입시켜 곡선을 다듬고 등에는 지면과 수직방향으로 직선고래수염을 집어넣어 판판하게 다듬은 것이다.

코르발레네처럼 버팀대인 바스크와 고래수염, 헝겊 등의 이음선 방향은 모두 허리를 가늘어 보이게 하기 위해 앞 중앙을 향해 V자형태의 선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고래수염을 전체적으로 집어넣고 0.3~0.4cm 간격으로 중앙을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꿰맸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고 몸을 조이는데 효과적이었다(그림 6). 그러나 고래뼈와 고래수염등을 넣어 촘촘하게 바늘질한 것은 허리를 가늘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으나 입고 활동하기에 불편하여 그 정도로 줄이면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것도 고안되었다.[16]

<그림 6> 162개의 고래수염이 삽입되어 있는 르네상스시대의 코르셋(華麗한 革命, p.49)

코르셋의 트임은 영국의 영향을 받아 앞 중심보다는 뒤에 위치하는 것이 많아서 대개 남의 손을 빌려 허리를 조였다. 겉은 장식적인 앞가슴 가리개 피에스 드 스토마(Piec'e de stoma)를 따로 만들어 대거나 또는 코르발레네 자체의 겉을 실크 천으로 만들어 자수로 화려하게 장식하기도 했다.[17] 특히 로브 볼랑이 유행하면서 로브의 앞가슴을 열어 놓고 입게 되자 코르발레레는 로브 만큼 중요해서 의상디자인의 초점이 되었다.

8) 엠파이어(Empire)스타일 시대와 왕정복고 시대

1804년에는 high waist의 코르셋이 등장했는데 리넨으로 만들어진 것이며[18] 1807년의 새로운 코르셋은 신축성이 있는 면으로 만들어져 억압이 적었다(그림 7).

1810~1811년경에 다시 허리를 조이기 위한 코르셋이 부활되어 니논(Ninon)형의 긴 코르셋이 새로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능직의 면포와 buckram[19] 혹

16) 정홍숙, 복식문화사, (서울 : 교문사, 1981), p.201
17) 정홍숙, 前揭書, p.252~253
18)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N.Y, 1965), p.475
19) 아교나 고무 등으로 딱딱하게 한 올이 거친 마포

<그림 7> 신축성 있는 면과 고래수염으로 만든 코르셋 (華麗한 革命, .103)

은 많은 고래수염을 사용하여 만든 것으로 전면 상단은 가슴의 형을 정돈하기 위해 유방의 위까지 오도록 구성되어 있고 뒤 중앙에서 끈으로 묶었다.[20] 1830년에는 코르셋의 길이가 복부까지 닿았고 가슴의 부푼 정도를 가다듬도록 gusset를 넣는 방법도 사용되었다.[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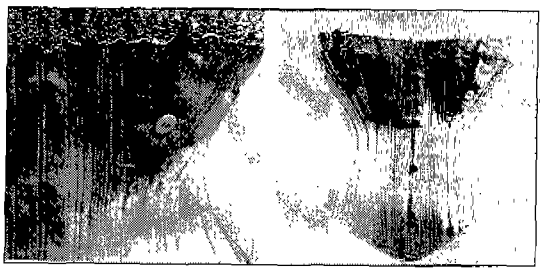
9) 크리놀린 스타일

1840년대부터 신축성 있는 코르셋의 구성법이 연구되어 여러 가지 참신한 형이 나왔다. 그 중에서도 1844년에 뒤물랭(Dumoulin)여사에 의해 개발된 코르셋은 딱딱한 바스크나 고래수염을 넣지 않고 몸의 곡선에 따라 재단한 7~16개 정도의 헝겊을 조각조각 맞추어 바느질함으로써 몸에 꼭 맞는 형으로 만든 것인데, 트임이 처음에는 뒤 중앙을 가는 끈으로 맸는데 1847년에 특수한 고리가 고안된 후부터는 앞 중앙을 고리로 고정시키고 뒤 중심을 끈으로 조정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이 되었다. 1855년에는 뒤물랭식으로 재봉이 되고 위생적인 성능을 지닌 새로운 형태의 쌍뒤르 끄레똥르(centurecre'ole)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어깨 끈이 없는 형태였다. 코르셋은 주로 흰색의 면으로 만들고 고급의 것은 안을 흰색의 면으로 겉은 여러 색깔의 얇은 실크나 윤이 나는 새틴코르셋(satin corset)등으로 만들었다.[22]

10) 버슬 스타일

당시의 코르셋의 구성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었다. 한가지는 가슴과 배의 곡선을 이루기 위해 삼각형의 gusset를 부치는 방법이며 또 한가지는 볕 장이고 헝겊을 가로로 서로 꿰매어서 신체의 곡선에 맞추는 방법이다. 내(內)쪽 모두 신체의 선을 아름답게 나타내도록 고안된 방법이다. 한편 1860년경 steam으로 형을 만드는 방법이 제작되었다. 즉 코르셋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전체에 빳빳이 풀을 먹이고 금속제의 틀에 맞추어 steam으로 형을 만들면서 손질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가느다란 고래뼈를 삽입시키는 법과 바느질 방법의 진보와 함께 코르셋을 한층 합리화시켜 현대화를 이끌었다. 코르셋의 길이는 1875년경까지는 비교적 짧았지만 스커트의 부풀음이 줄어들면서 크리놀린도 패드도 쇠퇴해서 동체부터 복부에 걸쳐서 곡선을 형성해 주면서 하복부까지 내려오게 되어 있었다. 트임은 앞 중앙에서 고리로 묶는 형식이며 뒤 중앙을 끈으로 조정했다. 1880년대의 어떤 코르셋은 검정 satin에 황, 청, 녹, pink색 등으로 기계자수 장식을 하고 가는 바늘과 같은 뼈를 삽입시키는 장소마다 제각기 여러 가지 자수 장식을 하였다. 1890년대 말이 되어 허리부터 힙에 걸쳐 가늘고 세련된 실루엣이 유행되면서 가슴을 똑바로 펴고 배를 다듬기 위한 여러 가지의 코르셋이 나타났다. 〈그림 8〉은 목면지(木棉地)로 만들어져 단추로 가슴 폼을 조정하고 위단은 레이스로 장식되어 있다.(日本 文化學園服飾博物館所藏品)

20) 정홍숙, 上揭書, p.301~302
21) 이정옥, 서양복식사, (서울 : 학문사, 1983), p.296
22) 被服文化協會編, 昭和44, 服食大百科事典 上, p.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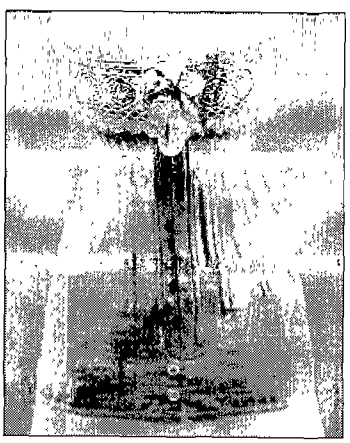


<그림 8> 목면지로 만든 코르셋 (Soen Eye, p.63)

1900년대 프랑스의 가슈 사르트 부인(madame Gaches Sarraute)은 복부에 댄 바스킨을 곡선으로 만들지 않고 직선으로 만들어 가슴에서 복부까지 평평한 실루엣을 이루게 하였다.[23]

11) 현대

20세기초에는 코르셋의 하단에 garter를 붙여 사용한 것이 일반화되었다. garter는 고무 헝겊을 새틴으로 싸서 바느질한 것으로 그 끝에 금도금(金鍍金)한 클립이 달려 있는데, 이 garter를 코르셋의 앞 중심 하단부나 어떤 때는 겨드랑이에도 꿰매어 붙였다. 1910~1914년경에는 롱 코르셋(long corset)이 유행하게 되는데 가슴에서 급격히 길게 되어 약 40cm이상이 길어진 것[24]도 있다. 〈그림 9〉은 1910년대 것



<그림 9> 롱 코르셋(Soen Eye, p.60)

으로 목면에 레이스와 리본을 장식한 코르셋이다. 길이가 넙적 다리까지 덮이는 긴 코르셋이지만, 뻐대는 다리의 곡선을 따라 만들어져 움직이기 편하도록 배려되었다. 뒷부분은 끈으로 조이는 구멍의 간격이 넓어 착용감이 좋도록 고안하였다.(日本 文化學園服飾博物館所藏品)

코르셋의 사용은 제1차 대전 때에는 잠시 필요없게 되었지만 후에 꼭 필요한 파운데이션이 되었다. 1920년경까지 어느 정도 직선형인 실루엣이 유행되고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어 여성다움의 특징은 일부러 피한 듯한 디자인이 성행했다. 193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코르셋의 착용은 쇠퇴와 부활을 반복하면서 꼭 착용해야 할 의무를 두지 않음으로써 1990년 현재의 코르셋이 만들어진 것이다. 코르셋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garter belt는 양말도 꿰기 위한 벨트로서 4개의 garter가 달려 있다. 벨트 부분이 어느 정도 폭이 넓어 복부의 부분을 가볍게 압박하도록 만들 것과 가는 폭의 tape형의 벨트 2종류가 있다. 폭이 가는 것을 tape garter라고도 한다.

waist nipper는 허리를 가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집게발의 의미이다. 전체를 고무로 만들거나 고무천이나 스판덱스를 부분적으로 처리한 것이 많으며 폭이 15~20cm정도이며 끈으로 여미거나 혹으로 여미도록 되어 있어 허리를 강하게 조이는 데에 사용된다.[25]

waist sincher는 waist nipper와 garter belt가 연결된 것이다. 즉 허리를 조이면서 동시에 양말을 걸어 nipper garter라고도 한다.

거들은 코르셋의 일종이지만 신축성이 있고 부드러운 것을 뜻한다.

거들 style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 통(筒)형인 보통형 거들, shape pants형, shrot형, high waist형,

23) Norch Waugh, Corset and Crinolines, (N.Y : Theatre Arts Books, 1998), p.85
24) 라사라 교육개발원, 복식사전, (서울 : 라사라), 1991, p.227
25) 라사라, 上揭書, p.232

low waist형, long legs형, body suit형, all in one형이 있다.

보통형 거들은 종래의 코르셋으로부터 출발된 것이므로 코르셋과 동일한 통(筒)형이지만 드기는 없다.

shape pants형은 거들과 쇼츠의 기능을 함께 가진 여성 속옷의 일종이다. 와콜이 1981년 가을에 판매하여 폭발적으로 팔린 뉴인나도, 면 트리코트네트와 투웨이 트리코트를 사용하여 거들의 특성과 쇼츠의 경쾌함을 함께 가진 점이 특징이다. 또한 17가지라는 다양한 색상도 눈 여겨 볼만하다.[26]

거들은 길이의 차에 따라 무릎아래 극히 짧은 것을 short형, 무릎아래 긴 것은 long legs형이라 부른다.[27]

body suit는 원피스 형식인 수영복 스타일로 all in one보다는 소재를 얇고 부드러운 것으로 쓴다. 파운데이션과 속옷의 양쪽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28](그림 10).

<그림 10> body suit ((주) 와코루, 1998)

all in one은 브래지어, 웨이스트 니퍼, 그리고 가터가 하나로 이어져 체형을 보정하기 위한 것이다. 때로는 팬티즈가 붙은 것도 있는데, 이것들은 코슬릿, 원피스 코르셋 등으로 통한다. 원래는 보정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견고한 것이 많았지만 현재는 투웨이 트리코트 등을 사용한 부드러운 촉감을 주는 것이 많다.[29] 그리고 현재는 all in one과 body suit를 따로 보지 않고 body suit 하나로 통일해서 명칭하고 있다.

이상은 일반용이지만 특수한 것으로 maternity 거들이 있다.

이것은 임산부용 거들로서 산전용 거들과 산후용 거들로 나뉘어진다. 산전용 거들은 복대가 갖고 있는 이점을 현대의 외생활에 맞도록 고안된 제품이다. 이 제품은 커다랗고 무거워진 배를 감싸주고, 하복부를 밑에서 위로 비스듬히 바쳐 올려주고, 배를 압박하지 않도록 된 보통의 거들과는 기능과 목적이 전혀 다른 제품이다. 산전용 거들은 복부 부위의 근육이나 피부의 이완을 도와주고, 과다한 임신지방이 불어나지 않도록 해줌으로서, 산후 몸매의 원상회복이 잘 되도록 보조하는 효과도 있다. 산후용 거들에는 복대(스무자), 지방 추출용 거들이 있다. 복대(스무자)는 출산후의 자궁이나 골반의 회복이 빨리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출산 후 3일경부터 이용하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지방 추출용 거들은 출산후의 몸 상태와 임신지방이 집중되어 있는 부위를 강하게 조여주고 골고루 분산되도록 설계되어 출산후의 체형에는 가장 적합하다.

복부나 허리의 회복상태에 따라 들레를 조절할 수 있도록 조절고리가 부착된 제품을 선택 하는게 좋다.

2. Corset의 재질과 장식

고대 크리트 시대에는 코르셋이 벨트 형태여서

26) 라사라, 前揭書, p.230
27) 최영옥, 前揭書, p.676
28) 라사라, 上揭書, p.229
29) 라사라, 上揭書, p.232

가죽이나 금속이 이용되었는데 고가(高價)의 것은 장미 문양이나 기하학적인 문양을 넣었고,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밴드형식으로 리넨이나 새끼 염소의 가죽 등을 흔히 사용했는데 때론 금·보석·비취도 사용하였다.

중세 시대에 입었던 코르사주는 신축성을 주기 위해 울과 실크의 교직 물을 두세겹 겹쳐서 누빈 것이며 화려한 것은 금·은·색실 등으로 모양을 넣어 누비고 장식을 했으며, 근세 시대부터는 면이나 리넨을 사용하였는데 풀을 먹인 두 겹의 천 사이에 바스크를 삽입하여 누벼 사용하였다. 바스크로 사용되었던 재료들은 나무뿌리·고래수염·금속·상아 등이다. 겉면에는 무늬가 없는 실크에 수를 놓거나 화려한 무늬의 브로케이드 등을 사용하여 장식을 하였다. 또 철제용 코르피케는 말 그대로 얇은 철편(鐵片)을 사용해 만든 것이다. 1722년에는 고래잡이를 위한 주식회사가 국가 시설로서 네덜란드에 설립되어 고래수염을 이용한 정교한 코르셋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고, 1776년경은 리본직기의 자동화, 레이스 직조방식(織造方式)의 개량, 편성기 개량은 장식적인 코르셋의 진보를 가져왔다. 그러다가 19세기말부터는 합성섬유와 합성염료의 발명으로 실용성과 색상이 더욱 향상되었는데, 1904년에서 1905년에는 다채로운 색상의 새틴이나 브로케이드 등의 견직물로 여기에 자수를 하거나 레이스장식을 달아 화려함을 더했다. 1930년대에는 미국에서 발명된 레이텍스(latex)와 슬라이드 피스너(slide fastener, zipper)로 가장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실크 코르셋이 제작되었고, 1940년대에는 어느 정도의 편안함을 주는 고무섬유가 소개되었지만 고무가 들어간 코르셋과 거들은 완벽하게 체형을 고정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모양과 감촉도 좋지 않았다.

1958년에 나일론을 소개한 미국의 듀폰사가 라이크라(Lycra)를 발명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스판덱스(Spandex: 폴리우레탄계 섬유의 일종)이다. 무겁고 구식인 고무 섬유를 대체한 신비의 탄성섬유인 라이크라는 더 가늘고 더 얇고 더 가벼운 고품질의 탄성섬유로 옷을 입었을 때 편안함과 좋은 착용감으로 활동을 자유롭게 했다. 또한 땀, 기름, 화장품에도 더러워지는 일이 없고 세탁에도 잘 견디며 고무와는 견줄 수 없을 만큼 올을 가늘게 뽑아 낼 수 있어 염색성도 좋아서 다양한 색상의 코르셋과 거들을 입을 수가 있게 되었다.

1990년대에 와서는 탄성섬유의 단점인 통기성을 보안하기 위해서 면 스판텍스가 사용되어 통기성과 분비물의 흡수성을 좋게하여 쾌적함을 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Ⅳ. Underwear

속옷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체형보정을 목적으로 한 화운데이션과 화운데이션을 기초의류로 한 장식의(裝飾衣)인 란제리 등이다. 화운데이션은 "토대, 기초"란 의미로 화운데이션 가먼트(Foundation garment)의 약칭으로 보통 코르셋, 거들, 브래지어, 후프, 파니에 따위로 체형을 다듬는 속옷을 가르킨다. 란제리는 프랑스어의 렝(삼)에서 나온 말로 여성용 속옷의 총칭이다. 옛날에는 거의 삼으로 만들었으므로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으나 요즘은 화려한 레이스나 자수 등을 곁들이고, 부드러운 원단을 소재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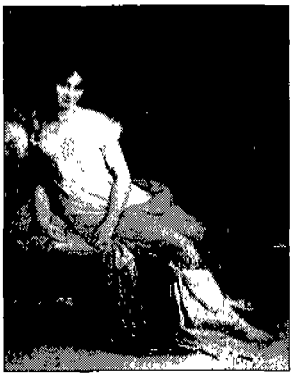
1. 슈미즈(chemise)

가장 속에 입던 것으로 일반적인 형태는 품이 풍성하고 목선이 둥글거나 또는 사각형이며 소매는 길고 넓은 것이 있는데 목선과 소매 끝에는 프릴이나 러프, 리본 장식이 되어 있고 흔히 사용되었던

30) 윤진아, 근세시대의 서양여자 속옷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성신여대 조형대학원, 1995), p.3

재질은 리넨이나 실크로 백색이 애용되었으나, 귀족층의 사람들은 자수가 놓인 화려한 실크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8세기부터 길이가 점차 짧아지면서 간편한 형태가 만들어지다가 1900년대에는 어깨 끈이 좁아지고 소매가 없는 형태가 되면서 현재의 슬립형으로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사용되어지고 있다(그림 11).



<그림 11> 슈미즈 가운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p.289)

2. 후프(hoop)

의복을 과장시키기 위해서 15세기말에서 17세기까지 사용된 후프는 나라마다 쓰임이 조금씩 달랐다. 스페인형의 베르튀가댕은 원추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고 영국형은 원통형을 이룬다. 한편 프랑스형은 자동차 타이어 모양을 하는 오스퀴가 있었다(그림 12). 18세기에는 파니에가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양옆과 뒤쪽 등을 여러 형태로 부풀릴 수 있었다. 19세기 중엽에는 크리놀린이라는 버팀대를 사용하여 부풀림의 절정을 이룬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는 버슬이 제동장되면서 부풀림이 뒤쪽으로 모여지게 되었다. 현대에는 스커트의 폭이 좁아지고 길이가 짧아지면서 이러한 기구를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게 되었다.

<그림 12> 오스퀴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
(Corset & Crinolines, p.31)

3. 페티코트(petticoat)

페티코트는 후프와 함께 스커트를 부풀리는데 사용되었는데 크레타 시대에는 페티코트의 수(數)가 지위(地位)나 부(富)를 나타내는 신분(臣分)의 상징(象徵)이였다[31](그림 13). 16세기에 나타난 페티코트의 형태는 허리에 테이프와 리본으로 묶어서 고정시키고 적색의 모직, 면, 리넨 등을 사용하였다. 16~18세기까지 화려하고 풍성한 페티코트가 사용되었다. 엠파이어 시대에는 스커트 폭이 잠시 좁아지면서 사용이 줄어들다가 크리놀린 시대가 되면서 전성기를 맞게 된다.

<그림 13> 여러겹의 페티코트(Soen Eye, p.41)

이때 사용된 재질은 camelot[32], cashmere,

31) 오정숙, 前揭書, p.51~52
32) 면과 모 교직의 얇은 천

flannel[33], taffeta[34], alpaca등이다. 1866년 이후에는 버슬 스타일의 페티코트가 유행하게 되었다.

20세기에 오면서 역시 스커트의 길이와 폭의 영향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지만, 결혼식때의 웨딩드레스나 파티때의 파티드레스 등 특별한 날에는 사용되어지고 있다.

4. 드로워즈, 판탈렛(drawers, pantalettes)

19세기 이후부터 유행된 드로워즈는 남성의 것을 본 따서 만든 속바지 형태의 것으로 시대마다 정교한 자수와 레이스로 장식이 되었는데 실용적인 것보다는 장식적인 것으로서 승마할 때 등에 드물게 사용되었다(그림 14). 흔히 사용된 재질은 리넨이나 실크, 울 등이 사용되었다. 20세기초에는 길이가 축소되면서 팬티로 되었고, 길이와 재료나 색상 등이 다양해졌다.

<그림 14> 궁정에서 승마할 때 사용한 드로워즈(패티시즘, p.123)

5. 브래지어(brassiere)

최초의 브래지어는 그리스, 로마시대에 사용한 밴드형으로 리넨이나 울로 만들어져 가슴의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 키톤 위에 입었다(그림 15). 그후 계속 코르셋이 보조를 맡다가 19세기에 비로소 볼스터(bolster)가 변하여 브래지어가 등장했다. 1887년까지는 cap을 철사로 만들었으나 1890년 초부터는 celluloid를 사용하였고 점차 보완되어 1937년부터는 현재와 같은 브래지어가 사용되었다. 브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림 15> 그리스의 여인들 (Support & Seduction, p.104)

bandeau 브라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본적인 형태로서 혹으로 입고 벗을 수 있다. 이형에는 cap이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어서 그 아래 밴드가 붙은 것과 밴드가 없고 cap의 중심에 옆선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다.

padded 브라는 패드를 넣은 브라라는 의미로서 cap부분 뒤에는 패드를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패드와 같은 재질의 것을 cap의 부분 전체에 꿰매어 넣어져 있는 것이다. 가슴이 빈약한 경우 브라에 패드를 넣음으로써 체형을 교정해 줄 수 있다.

front hook 브라는 브라에는 앞 중심에서 혹으로 열게 되어있다. 뒤트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앞 중심에서 부피가 늘어나 조금 뜨는 것이 단점이다.

strapless 브라는 끈이 없는 브라이다. 드레스에

33)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생산되기 시작한 평직이나 능직의 방모직물
34) 실크나 인조섬유의 필라멘트사로 짠 복지 중 하나

따라 끈이 필요 없는 것이 있다. 즉 칼라도 없고 소매도 없으며 소매 폭이 대단히 넓게 파진 경우라든가, 레이스처럼 투명한 옷감에서는 끈이 보이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사용된다. 이러한 스타일은 유방이 큰 사람이나 빈약한 사람은 동작에 따라 흘러내려 오는 단점이 있다.

off-shoulder 브라는 끈이 어깨 끝에 부쳐 있는 형의 브라로서 드레스의 목둘레선이 옆으로 넓게 파져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plunging 브라는 깊이 파임이라는 의미로 앞 중심이 깊게 파져 있는 브라이다. 드레스의 목둘레선이 V형으로 깊게 파져 있을 때 사용한다.

stretch 브라는 어깨 끈이 고무와 같이 자유롭게 신축(伸縮)되는 것으로 재질은 polyurethane사 탄성 섬유 spandex가 있다. 이 브라의 특징은 어깨 끈이 신축성이 있어 동작에 따른 압박감이 없고 착용하기 쉬운 점이 있다.

backless 브라는 뒤 부분이 없는 브라로서 신부용의 드레스나 evening dress로서 등이 waist line까지 깊이 파인 것이다.[35]

camisole 브라는 길이가 waist line까지 오는 브라로서 상반신을 거의 덮는 것으로 겨울에는 상반신을 꼭 맞아 보온도 될 수 있다.

maternity 브라는 임산부용 브라로 최근 (주)와코루에서 4가지 종류를 선보이고 있는데 그 종류는 산전용 브라와 산전·산후 겸용 브라, 산후용 브라, 산욕용 브라로 나누어져 있다.

산전용 브라는 위(胃)를 압박하지 않고 4단 조절이 가능하여 크게 변화하는 바스트에 가장 적합하다.

산전·산후 겸용 브라는 cap을 개폐할 수 있어 수유 기능이 겸비되어 있고, 산후용 브라는 모유를 만들기 위해 더욱 커진 산후의 바스트를 잘 감싸주고 바쳐 올려 주는 리프트-업 기능의 수유 전용 브라이다. 산욕용 브라는 출산 직후 민감해진 바스트를 보호해 주고, 등 부위에 조절 고리가 없이 설계되어 장시간의 휴식이나 요양에도 대단히 편안함을 준다.

6. 캐미솔(camisole)

16세기에 프랑스에서 도입된 캐미솔은 부인용 상의로 코르셋 커버, 웨이스트 코트 또는 후에 페티코트와 결합되어 사용되기도 했기 때문에 페티코트 바디스라 불리기도 했다[36]. 1840년대 초 처음 등장했을 당시에는 백색으로 길이가 길며 허리부분에 삼각형의 무가 있었으나 점차 얇고 화려한 색상의 스커트를 많이 사용하였고 소매가 없고 목둘레가 깊이 파인 형태가 사용되었다. 1920년대 말부터는 수요가 점차 줄어들었지만, 현재는 데이 웨어라하여 잠옷 대용으로 쓰이기도 한다.

V. 결 론

이와 같이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코르셋과 속옷은 아름다운 선을 찾으려는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현대에 이르러 아름다운 body shape을 갖고 싶어하는 모든 여성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body shape을 보정해 주었다. 이와 동시에 위생적이고 활동적이며 실용적이고 편리성을 보장해 주던 코르셋과 속옷의 연구가 계속되었고, 이러한 결과로 코르셋과 속옷은 현대 여성들에게 외적으로 아름다운 실루엣을 제공해 줌과 동시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여성들에게 내적으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심리적인 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김기업, Gothic시대의 남녀복식에 관한 연구, 홍

35) 최영옥, 前揭書, p.679~680

36) C. Willett & Phillis Cunnington, History of under clothes, London; Michael Joseph, L.T.D., 1951, p.199

익대 대학원, 석사논문, 1885
· 김주애, 여자속옷의 변천에 관한 연구, 경상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5
· 라사라, 복식사전, 도서출판 라사라, 1991
· 백영자 · 유효순,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 경춘사, 1991
· 안명견, 고대 크레타인의 복식에 관한 연구, 동명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1
· 오경숙, Undergarment의 변천사적 고찰-여성복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논 문, 1985
· 신상옥, 서양복식사, 서울 : 수학사, 1995
· 유송옥 · 이은영 · 황선진(공저),복식문화, 서울 : 교문사, 1997
· 윤진아, 근세시대의 서양여자 속옷에 관한 고찰-스토머커를 중심으로-, 성신여대 조형 대학원, 석사논문, 1995
· 이의정 · 양숙희(공저), 페티시즘, 서울 : 경춘사, 1998
· 이정옥,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 경춘사, 1991
· 이현주, 고대 그리스와 신고전주의 시대의 여자복식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8
· 서양복식의 흐름-18세기에서20세기까지-, 온양민속박물관, 1998
· 정복희, 서양복식내의의 변천에 관한 연구-여성복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 논문, 1986
· 정흥숙, 복식문화사, 서울 : 교문사, 1981
· 정흥숙,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 교문사, 1997
· 최영옥, Corset에 관한 고찰, 안동대 논문집 제5호, 1983
· 최영옥, Underwear에 관한 연구--Hoop와 파팅게일을 중심으로-, 안동대 논문집, 제6호, 1984
· 華麗な 革命, 京都國立近代美術館, 도쿄, 1989
· 丹野 郁, 昭和33~40, 西洋服飾發展史, 光生館, 東京
· 丹野 郁, 近代西區服飾發展史, 光生館, 東京, 1972
· 服飾大白科辭典 上, 昭和44, 被服文化協會編, 文化服飾學院出版社, 東京
· 文化學園 文化事業局, SOEN EYE No.8, 東京, 1992
· Beatrice Fontanel, 20,000 Years of Fashion, N.Y, Harry N. Abrams Inc., Publishers, 1983
· Beatrice Fontanel, Support, and Seduction, A History of Corsets and Bras, N.Y, 1997
·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Harper& Row Publishers, N.Y, 1965
· C. Willett & Phillis Cunnington, History of under clothes, London: Michael Joseph, L.T.D., 1951
· Elizabeth Ewing, Dress and Undress, A history of women's underwear, Drama Book Specialists, N.Y, 1978
· Francois Boucher,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Thames and Hudson, London, 1987
· Michele Beaulieu, 中村祐三(譯), Le costume Antique et Medieval, 東京 : 白水社, 1974
· Norch Waugh, Corset and Crinolines, N.Y.: Therate Arts Books, 1998